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1300-000002-10

2018년 중원독서회 문집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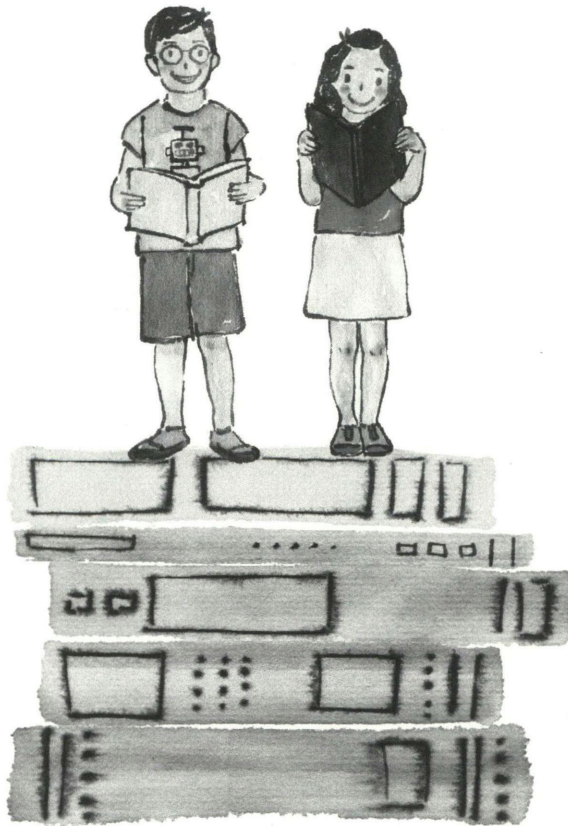
책과 만나는작은이야기



SDC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중원도서관

책과 만나는 작은 이야기



중원도서관 독서회

☆ 대 상

성남시민 누구나

☆ 운영기간

상반기 3월 ~ 6월

하반기 9월 ~ 12월

☆ 구 분

다사랑독서회

인문고전(성인)독서회

영어독서회(초등고학년)

어린이 독서회(유치부)

어린이 독서회(초등저학년)

어린이 독서회(초등중학년)

☆ 내 용

독서토론

인문고전 읽기

원서읽기

다양한 글쓰기

독후 동시쓰기

독후활동 등

차례/contents



09 **다사랑독서회**
독후감상문, 수필, 시

25 **인문고전(성인) 독서회**
수필, 시

35 **영어 독서회**
독후영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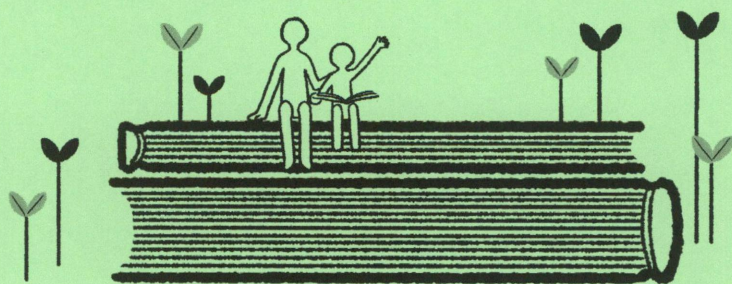
53 **어린이 독서회(유치부)**
독후활동(등장인물표현)

65 **어린이 독서회(저학년)**
독후동시
책소개글

81 **어린이 독서회(중학년)**
독후동시

다사랑 독서회

독후감상문, 수필, 시



여 백

〈독후감상문〉

『꽃 진 자리에 어버이 사랑』을 읽고

심연선

이 책은 열두 명의 여류 명사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서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님 앞에선 우리들은 영원한 아이이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꽃 진 자리에 또다시 피어나는 어버이 사랑. 인상에 남는 작품은 최명숙, 「아버지, 그 아슴아슴한 기억」에서는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윈 작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몽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다. 실루엣으로만 남은 아슴아슴한 기억. 그리고 사진 속에서 발견한, 군인들이 어깨를 결고 찍은 키가 크고 잘생긴 아버지의 미소를 회상하는 작가. 그녀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짝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쓴 글이 다음에 소개하는 글이다. 제목은 「바닷가의 추억」이다.

어렸을 적에 찍은 가족사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빠와 나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알랭 들롱(Alain Delon, 프랑스 배우)을 닮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배우 뺨 칠 정도로 잘생겼다.

우리 연선이 피부가 참 곱다며 자는 내 얼굴을 쓰다듬던 아버지. 중학생 때쯤이었을까. 자지 않으면서도 선뜻 눈을 뜨지 못하고 자는 척했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 조금 낮설었지만 기분 좋은 추억이다. 그날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안방에서 어머니하고 잤는데 아침에 귀가한 아버지가 자고 있던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를 어려워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격하셨다. 어머니와 사남매가 안방에 모여 화기에 애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아버지의 귀가를 알리는 트럭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재빨리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소리를 귀신같이 구별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무섭고 어려웠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었나 보다. 하루는 닭 장사를 하는 친척집에서 무언가를 얻어 와서 나 보고 씻으라고 시키셨다. 씻으려고 냄비 뚜껑을 열어본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냄비 안에는 닭 모가지만 있었다.

“으악! 난 못 해요.”

닭대가리가 나를 일제히 바라보는 것만 같아서 징그러웠다. 야단맞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빙그레 웃고 마셨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방학이 되면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시골에 갔는데 종합캔디를 꼭 챙겼다. 사탕을 할 아버지부터 사촌들까지 골고루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어린 나는 우두둑 깨물어 빨리 먹어치웠지만 할아버지의 주머니에는 사탕이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가끔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을 얻어먹은 즐거운 기억이 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시골로 낙향한 아버지를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에 돌이 나란히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버스에 올라와서 내 옆자리의 승객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저기 이 사람이 환자라서 그러는데 자리를 좀 양보해줄 수 없을까요?”

졸지에 환자가 되어버린 그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 승객이 말없이 일어났다. 덕분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두 시간 가량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루하지 않은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다. 요즈음의 아버지들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엄하게만 하지 않고 격의 없

이 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그 시절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렇듯 우리 아버지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식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못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웠고 우리들도 그다지 살갑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여름 방학에 아버지를 뵙고 돌아오는 길에 해수욕장에 들어서 놀다 올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기차역까지 우리 가족을 태워다주면서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갈까?”

그러셨다. 순간, 남편과 나는 당황했다. 바닷가에서 놀다 올 생각이었지만 그 그림에 아버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둘러댔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버지와 신례원역에서 헤어진 우리는 대천해수욕장에서 두세 시간쯤 물놀이를 했다. 수영복을 준비하지 않았고 파라솔이나 튜브를 빌리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갈 요량이었다. 그날 입었던 아들의 옷, 흰색 바탕에 파란색 줄이 있던 티셔츠가 또렷이 생각난다. 파도가 덮쳐오자 깜짝 놀란 아들의 표정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함께 떠오르는 생각, 아버지도 함께 물놀이를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그걸 들어드리지 못한 일이 이제 생각하니 후회가 된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모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바닷가에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

〈산문-수필〉

꿈을 품은 향아리

심연선

문우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나왔다. 높고 푸른 하늘과 청량한 바람, 좋은 날씨이다. 식사를 하고 글쓰기 시간을 가졌다. 각자 좋아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임대성씨는 준비성 있게 받침대를 가져왔네.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살랑살랑 부는 바람, 따사로운 햇살, 오가는 사람들, 들려오는 말소리에 쉽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무얼 쓸까 고민하는데 따뜻한 가을 햇살을 받고 있는 향아리가 눈에 띈다. 모 시인의 동시 가운데 「장독대」가 생각났다. 시골집 앞마당에 놓인 장독대를 보고 된장이며 간장, 고추장을 뜨러 장독대를 드나드는 여인네들, 할머니, 어머니, 고모, 누나를 닮았다고 시인은 노래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오순도순 모여 사는 식구들처럼 향아리도 한 곳에 모여 정겹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평론가의 말처럼 ‘아름다운 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인의 심성이 느껴졌다.

장독대를 보면서 문득 문우들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합평회를 하기 위한 자리를 알아보려 뛰어다니고 회원들을 위해 비빔밥 재료를 어제부터 준비했을 회장,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고 늘 미소로 대하는 총무, 한마디씩 톡톡 우스갯소리로 모두를 웃기는 문우, 장땀이든 국수든 현란한 손놀림으로 재빨리 만들어내는 문우. 글을 쓰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모였지만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은 향아리처럼 각자 서로 다른 맛과 향을 지녔다. 우리는 오늘도 향아리에 꿈을 담근다. 각각의 향아리에 담겨 있는 꿈은 무엇일까. 오늘 향아리에 담근 꿈들이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과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숙성될 것이다. 어느 날인가 각각의 향아리에 담근 꿈들이 숙성되어 더 진하고 깊은 맛을 내기를 기대해 본다.

흔히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들 말한다. 나 역시 그랬다. 중학교 시절에는 막연히 좋은 엄마,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십이 넘는 나이에 꿈을 꾸게 되었다. 작가가 되겠다고는 감히 생각도 못하지만 일상의 기록들, 예를 들면 일기라든지 독서록, 수필을 모아서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속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인순이가 부른 노래, ‘거위의 꿈’의 한 소절이다. 소중한 꿈이 있기에 남들이 비웃어도 차가운 현실의 어려운 장벽도 당당히 마주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꿈이란단다. 난 꿈이 있어요, 책을 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지금까지는 독서록을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독후감을 남길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작가가 무슨 의도로 그런 글을 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꿈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2018.10.3

〈독후감상문〉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를 읽고

심연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라” 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용서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가나 철학자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평범한 인간들에게 용서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 『밀양』은 용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배우 전도연이 어머니를 연기한 그 영화는 아이가 유괴되어 살해당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용서를 생각하게 한다. 아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괴로워하다가 수감되어 있는 범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 이성을 잃은 전도연이 외쳤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용서받았나요?” 여기서 과연 범인을 용서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던진다.

위안부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용서의 문제이다. 영화 『아이 캔스피크』, 『허스토리』, 『소리굽쇠』는 모두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 가해자들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들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와 역사사실의 왜곡으로 피해자들의 상처의 곪을 더 깊게 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마음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

강남순은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용서 문제를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인종차별 정책 폐지 후 1995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의 의장인 성공회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는 1984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되도록 피해자가 받은 다양한 상처와 피해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용서를 통한 책임 있는 변화를 모색한다.

용서를 하려면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서를 하려면 복수심을 포기해야 한다. 가해자를 악마나 적으로 보지 않고 ‘동료 인간’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 (용서의 네 가지 구성 요소, 148~15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기독교 신자라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질러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스스로가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런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타인이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며 살 것이다. 용서는 쉽지 않다. 예수는 자기에게 죄를 짓는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되는지 묻는 제자에게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고 했다. 일곱 번 곱하기 칠십, 490번은 곧 계속 용서하라는 말일 것이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해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마가복음11장25절) 성경은 너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으면 너도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여러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다. 나의 잘못을 용서 받으려면 남의 잘못도 용서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 용서는 역시 어려운 과제이다.

2018.11.21

〈운문-時〉

가을

김정혜

나는 이 가을이 좋다

파아란 하늘이

내 마음마냥 넓고 높아서

눈 안에 들어오는 형형색이

친구 같아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나는 이 가을이 싫다

너무 높은 하늘이

금새 어둠에 뺏겨버려서

그 풍성한 형형색의 빛깔들이

더이상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듯

발밑으로 떨어져서

알아달라 아우성치는 그 낙엽들이

기억속에서

잊혀지는것 같아서

나는 이 가을을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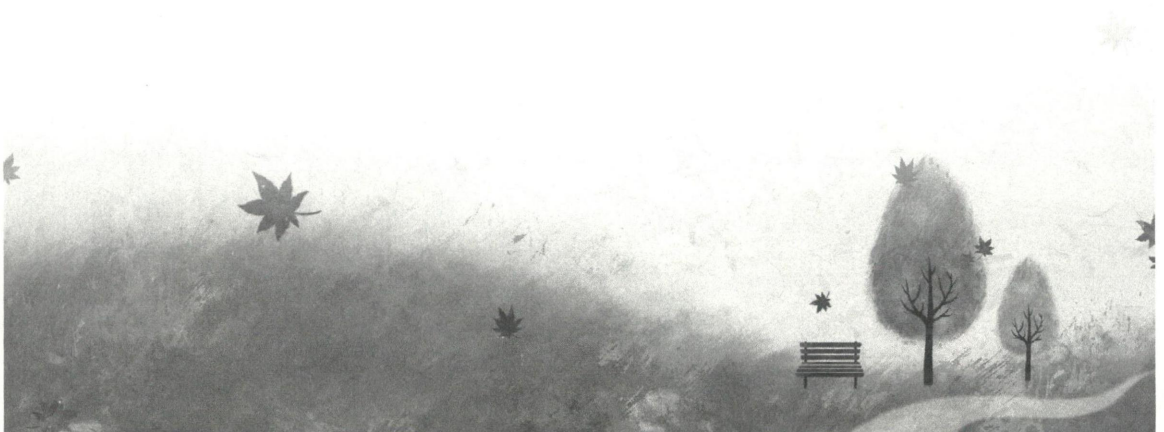
발끝에서 말 걸어주는 낙엽도

상기된 뺨에 와 닿아 인사하는 바람도

어둠이 내려앉은 밤 호수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의 몸짓도

다 좋다, 이 가을의 밤 냄새!



〈운문-時〉

문

김정혜

가을과 겨울이

조심스럽게 함께

그러면서도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숨털 보송보송한 그 시절과

굽직한 청년의 시절이

이별과 시작을 각각

준비해야 할 그 즈음에

새벽 어둠 가르고

어느새 훌쩍 내 키보다 커버린

아이를 올려다보며 팔 벌려 안아본다.

새벽 잠을 잊은채

싸 온 도시락을 손에 들려주며

저 문을 사이에 두고 아무말 없이

손만 잡아본다.

하루가 참 길다

어둠이 내려앉은 교문 앞에서

불켜진 교문 안 교실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하루 온종일, 아니 지난 긴 시간을
 견뎌 왔을 그 시간을
 고스란히 내 마음으로 받는다.

다리가 저려온다. 괜찮다, 나는 엄마다.
 엉덩이가 아프겠지! 조금만 더 힘내.
 엄마는 저 문 밖에서
 아이는 저 문 저 안쪽에서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한다.
 세상을 향한 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문 밖에서
 문 안에서 기도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그 문으로
 지친 듯, 홀가분한 듯
 어지럽게 휘감는 상념이 깃든듯
 뚜벅뚜벅 반가운 얼굴이 걸어온다
 아무말없이 그 지친 어깨를
 팔벌려 껴안아준다.



〈산문 수필〉

나는 매일 여행을 떠난다

송선희

막연히 책을 읽고 싶은 시기가 있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육아에 지쳐 지내던 시절

그 시절 나의 하루는 모유 몇 번, 분유 몇 번 먹이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

기저귀를 갈 때 오동통한 다리는 나에게 천근만근이었고 손목 인대는 상하고 온몸은 육신거렸다.

아이의 체중이 느는 동안 나의 몸은 지쳐갔다.

몸은 지쳤지만 뭔가 하고 싶단 생각에 아이가 자는 그 꿀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기 싫었다.

아이가 자는 시간은 눈이 반짝 지친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었다.

잠깐의 시간

집에 있던 수학 문제지를 집어 들었다.

문제를 읽고 의미하는 바를 체크하며 그에 맞추어 풀이를 꼬적꼬적 나열해 가다 보면 답은 튀어나온다.

온몸의 전율이 일듯 시원하고 개운함을 느낀다.

그 시절 말 못 하고 칭얼대는 아이의 반응이 수학 문제라면 그 반응을 풀이하듯 대응하며 원하는 것을 맞춰 나가며 답을 찾아갔다.

책 속의 문제보다 어렵고 진땀 식은땀 나는 것이었다.

그 시절 인터넷카페와 육아서적으로 배운 육아는 실전에서 통하지 않았다.

나의 아이는 그 속의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다.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렇게 아이는 커갔고 나는 지쳐 있었다.

필요에 의해 육아책을 빌리러 도서관을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인문학에 대해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독서모임을 찾았다.

일주일에 한번 모임을 가지며 책에 대한 내용과 일상을 통해 자신만의 체화된 생각과 느낌들,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

그렇게 시간이 쌓여 시야가 넓어지는 걸 알게 되었고 만족스러웠다.

아직 가지 않은 길이 많고 아직 읽을 책들이 많다는 건 행복하다.

어떤 기다림과 설렘들이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아서 말이다.

책만큼 좋은 친구가 있을까

책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을 떠난다.

지치고 힘든 시기에 찾았던 책이 이젠 나의 삶 속에 좋은 친구가 되어 도서관을 찾는 시간이 즐겁다.

오늘은 어떤 책과 여행을 떠나볼까

〈독후감상문〉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는데 - 가토 다이즈 지음 독후감

김주희

오늘 저녁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번에 둘째 아이가 삼수 끝에 수능을 본지라 시험에 대해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돈 때문이라도 삼수는 말렸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해 그리 시험은 잘 본편이 아니라고 했다. 무엇보다 친구가 속상했던 일은 진경이 언니 때문이다. 그 언니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같은 아파트에 오래 살아서 친한 사이인데 오늘 점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

친구가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하나봐” 했더니

진경언니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하고 묻더라.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아서” 라고 대답했더니 그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은 다른데 가서는 하지 말아라” 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며 곤대질 하는 진경언니에게 자기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도 될지, 그냥 아무 말없이

거리를 좀 두고 살지 고민이라 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대화로 풀고 극복한다면 둘 사이에 더 큰 신뢰가 쌓일거라며 대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지금까지 반은 도피하는 걸로, 반은 부딪치는 걸로 해결하곤 했다

나는 그 때 이 책이 떠올랐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견제해야 되는 경쟁사회이다보니 심리적으로 이룰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라고 하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나 자체로 살라는 메세지를 준다.

“나로 살기”를 매 장마다 강조한다. 심리적으로 파악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좌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과 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걸

알기에 일단 당연하고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마음의 지주를 세워야 한다.

분노를 참으면 결국 표출된다. 싫은 건 싫다고 하자.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거, 내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 그때그때 얘기하고 나니 상대방과 관계도 좋아졌다.

일단 사람들의 이목이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니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지...

본문 구절 중에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선량한 사람은 착취형 인간이나 교활한 사람들에게 만만한 먹잇감이다.” 라는 글이 있다.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정을 우정으로 추구한다. 연애를 연애로 추구하고, 일에서의 성공은 노력에 의한 성공으로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간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일차적으로 마음의 지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각해야 한다. 이런 자각없이 자신은 마음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힘든 환경도 마음의 지주를 세우는 기회이니 예를 들면 어른,선생님,종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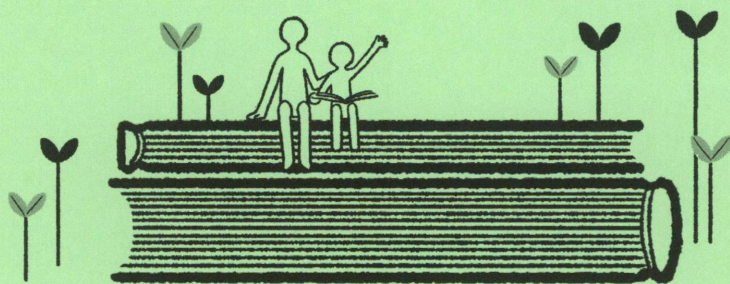
자신을 컨트롤 한다는 것은 ‘처리 한다’ ‘풀어 낸다’ 는 것이다.

자신을 컨트롤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책은 그냥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

인문고전 독서회

작문: 수필, 시



여 백

〈작문〉

사랑에 관하여.....

박상욱

Love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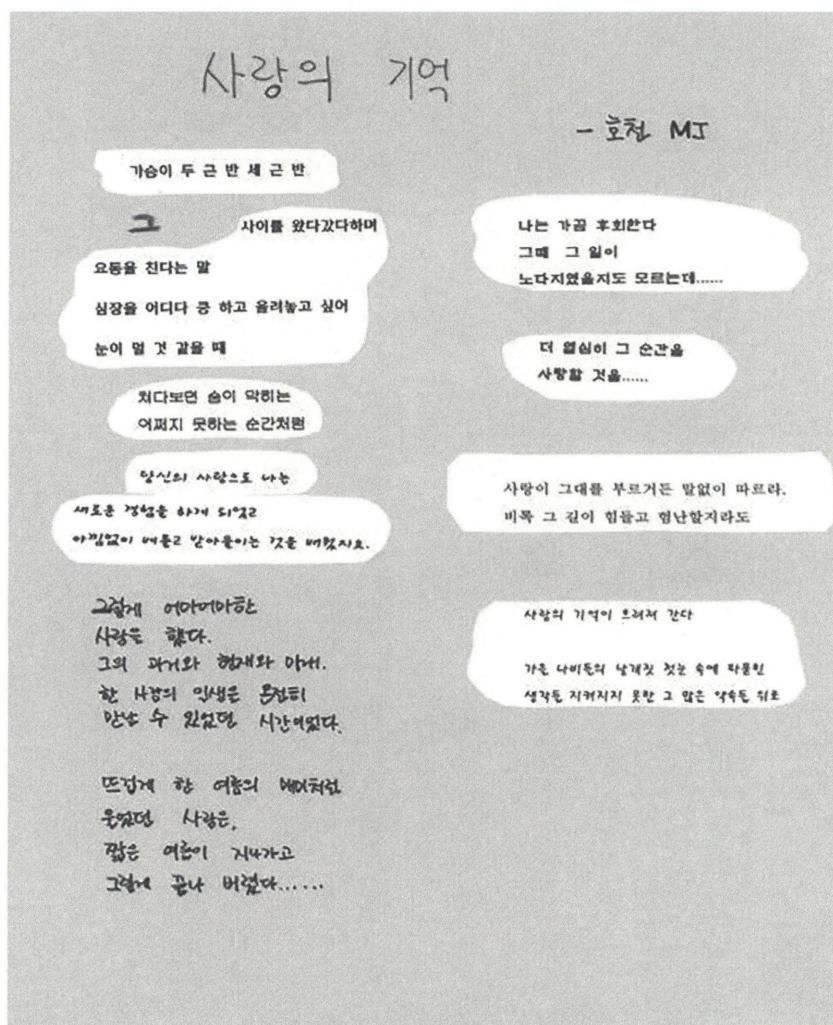
황혼에 대한 眼目은 내 눈의 무늬로
이야기 하겠다

나는 가끔 후회 한다
가슴이 두근반 세근 반
쳐다보면 숨이 막히는
어찌지 못하는 순간처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나는 사랑의 삶을 불태우고 싶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달빛에 실어 장신에게 보냅니다.
나의 사랑으로 인해
장신도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해요.

〈작문〉

사랑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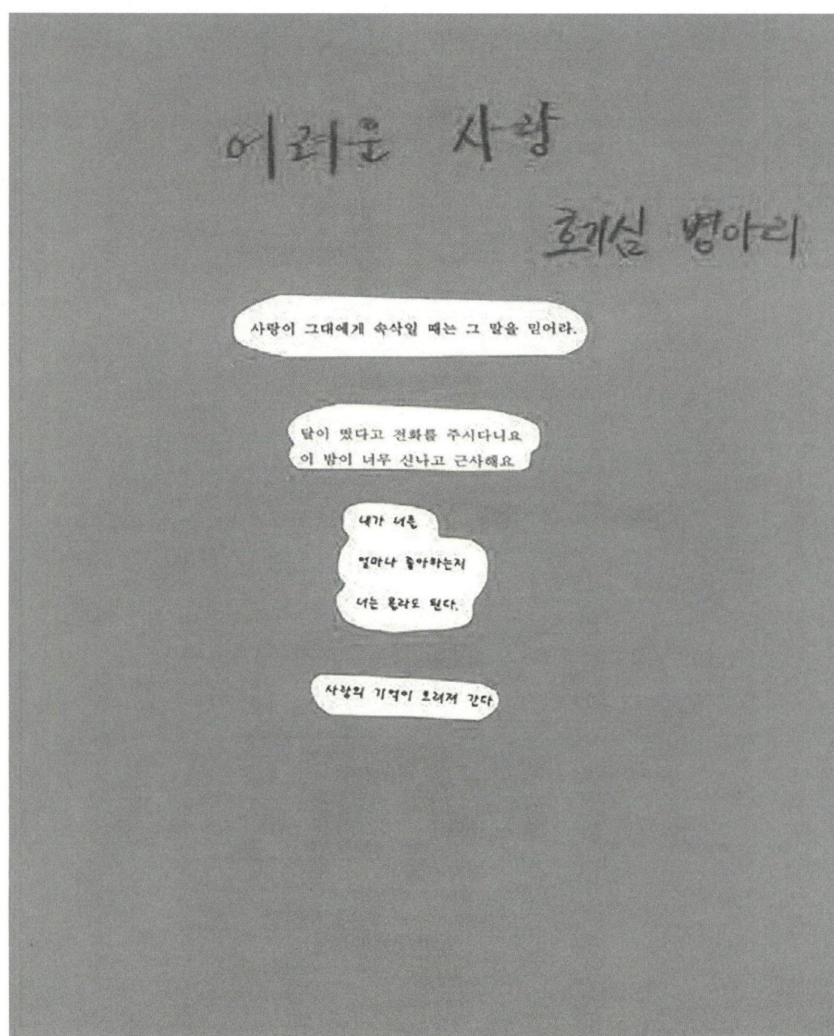
김민정



〈작문〉

사랑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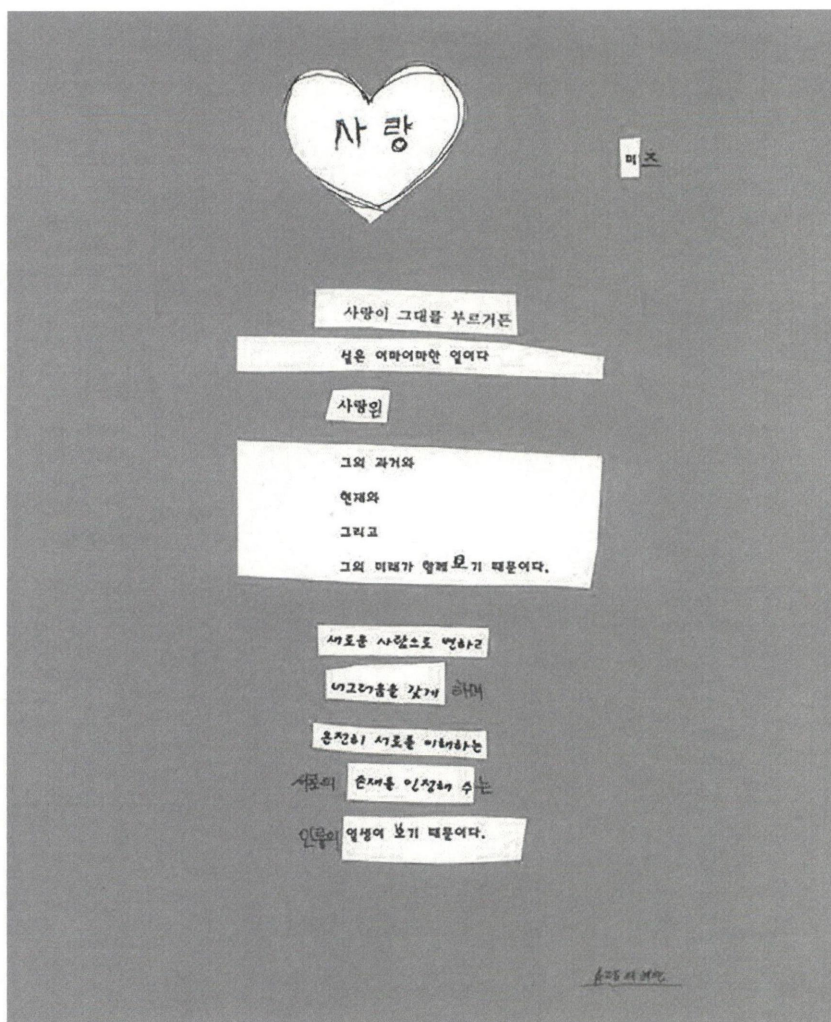
김양술



〈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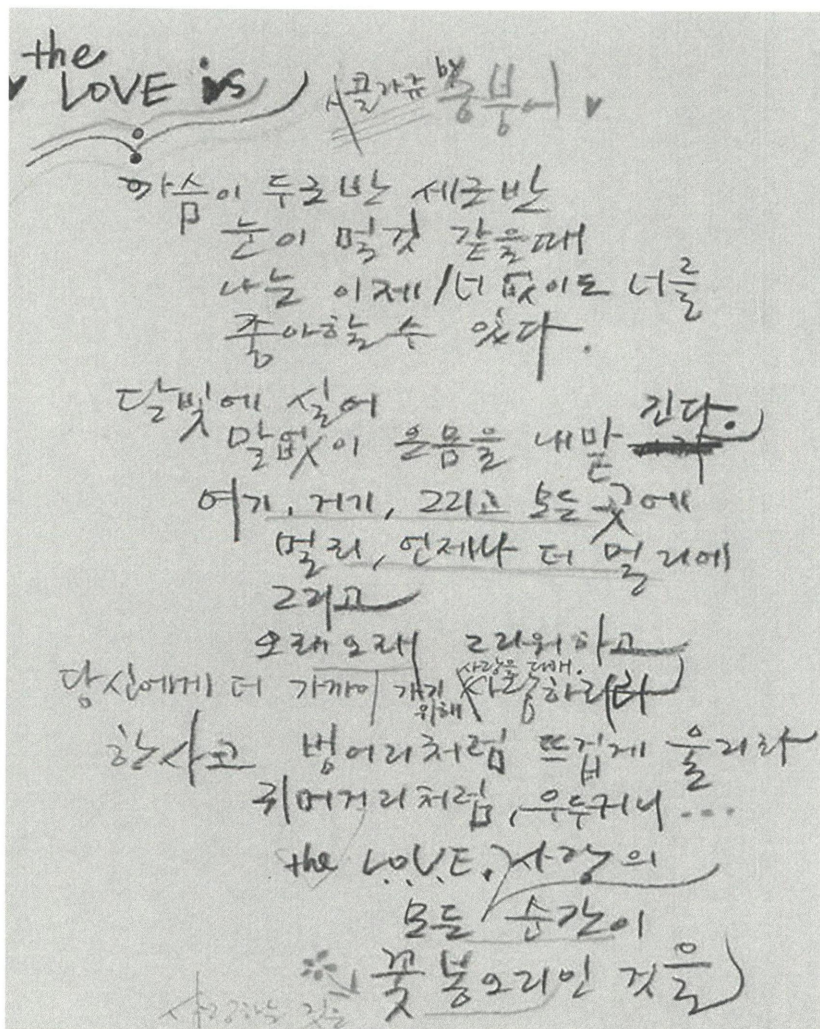
사랑에 관하여.....

방미나



〈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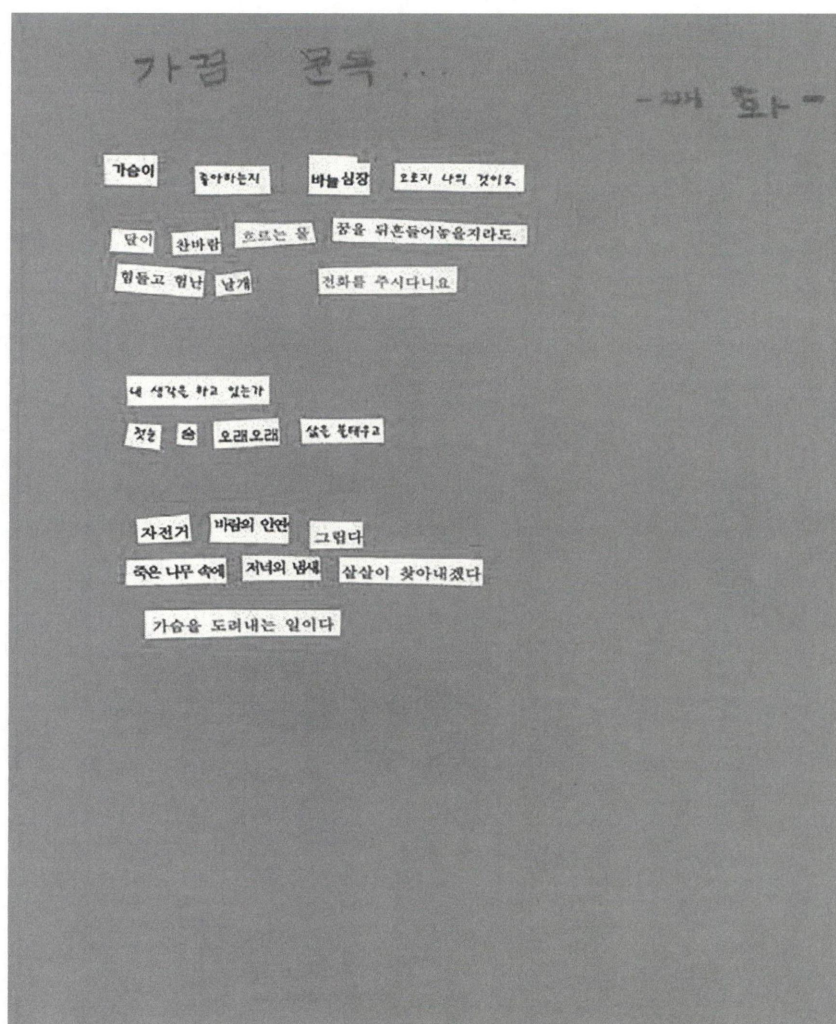
사랑에 관하여.....



〈작문〉

사랑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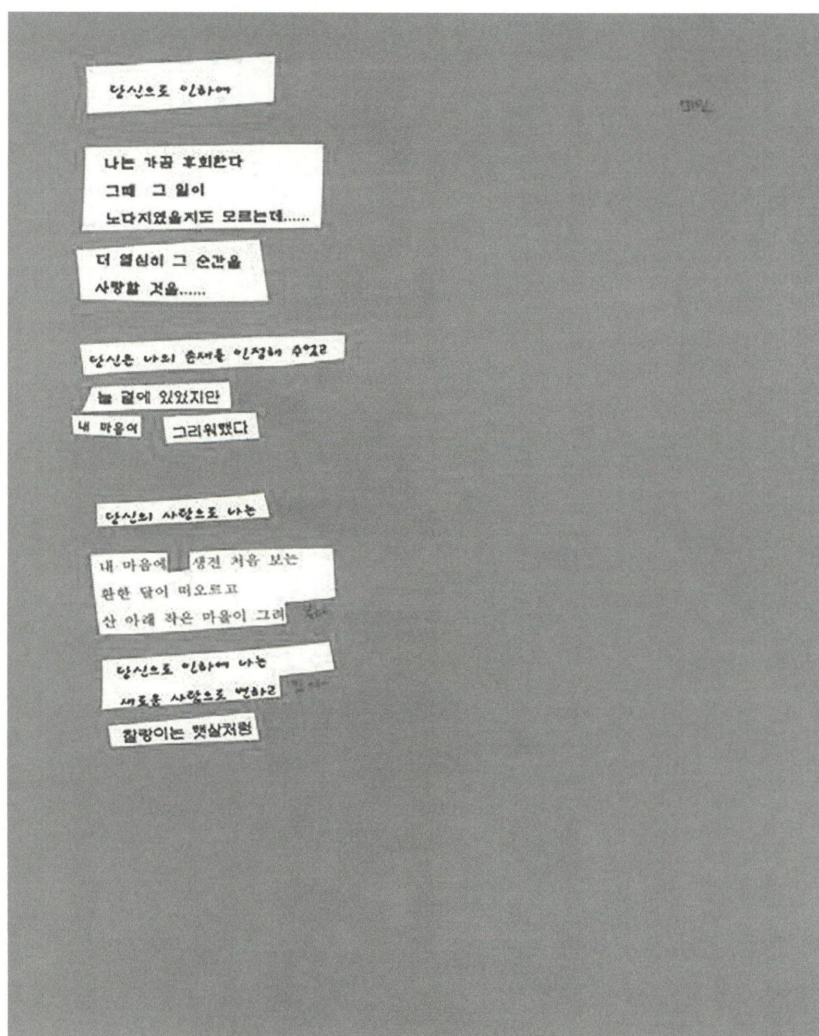
강지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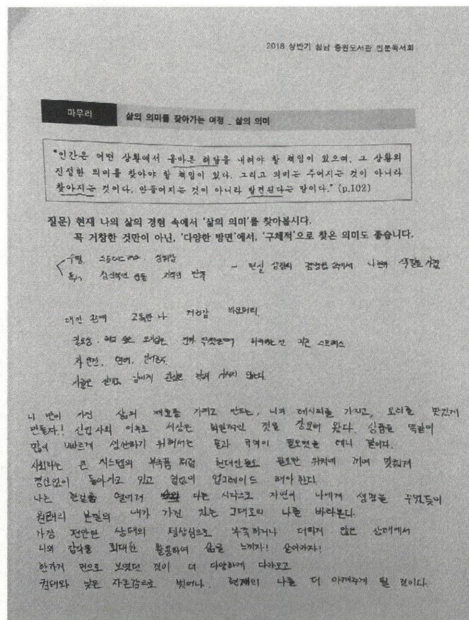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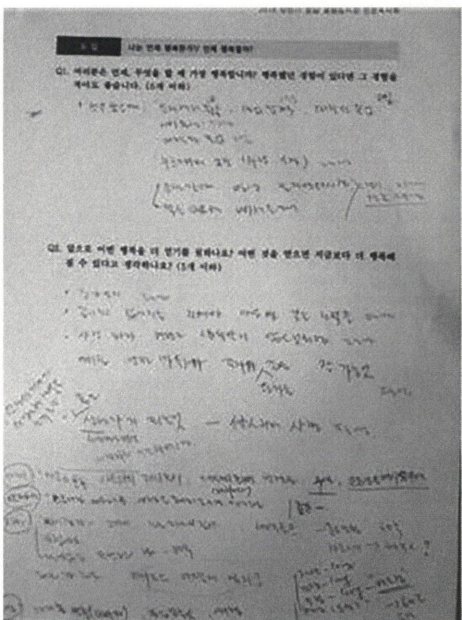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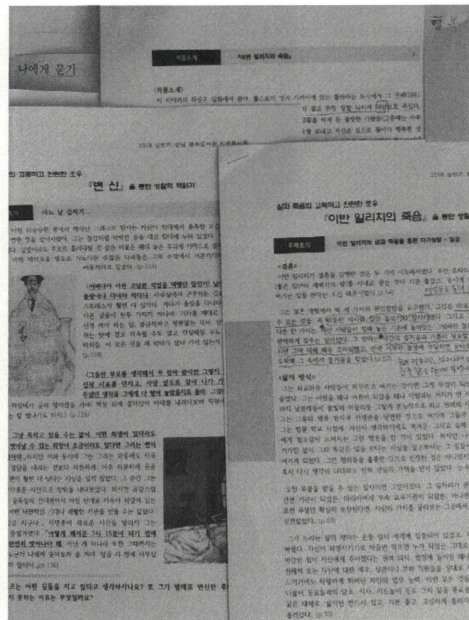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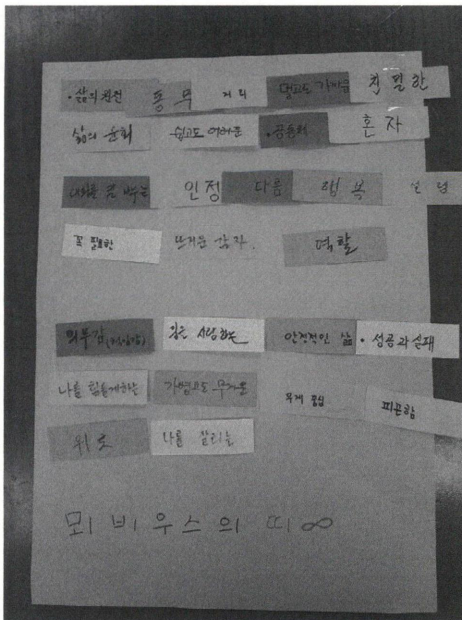
〈작문〉

사랑에 관하여.....

서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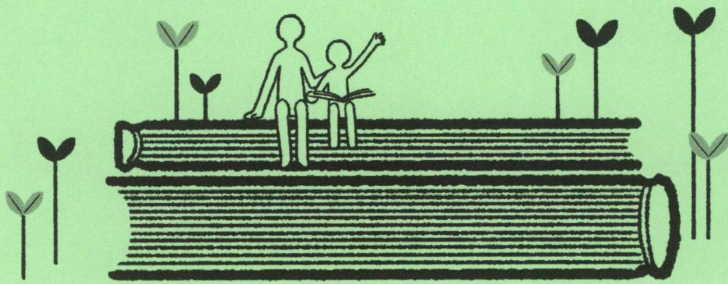


〈상반기인문고전독서회 활동자료〉



초등고학년 영어독서회

독후영작문, 독후영단어



여 백

〈독후영작문〉

문성원

문성원

Date: 2018/27th/oct

- Name of the book: Dutch Adventure
- Author: Roderick Hunt and Alex Brychta
- Characters: Biff, Chip, Hans and Trudy

Beginning

Biff, Chip and Dad went supermarket.
They bought four cheeses and get a
free baseball cap. At home magic key glow.
Magic key took them to The Netherlands

Middle

They meet a Hans. Hans were going market
for sell a cheeses. And they go with Hans.
Suddenly Hans's cart bump into bicycle
The man picked up he's cheese. Hans and
their friend walk a road together. They
see a dyke was going to burst. They help
Trudy they pushed the cheeses into the hole

End

They saw a man and ask a help but man was busy.
Chip and Trudy go far a get help. Inside a
wind mill they saw diamonds. The man was
thief! Mayor were catch a thief and
they fix a dyke. Magic key began to glow.
Is time for go home.

성남중앙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독후영작문〉

서찬영

서찬영

Date: 2018. 27th Oct

- Name of the book: Dutch adventure
- Author: by Roderick Hunt and Alex Brychta
- Characters: Biff, Chip, Hans and Trudy

Beginning

Dad went to supermarket. He took Biff and chip. Buy two cheeses and you get a free baseball cap. said the lady so dad buy four ch
At home Biff and chip went to Biff's room.

Middle

And only the key glowed.
The magic key took them to the Netherlands.
They meet Hans. Hans taking cheese to market.
And they meet Trudy. Help! she shouted.
Trudy and Chip ran to a windmill. The man was inside, and he was a thief.
They catch a thief.

End

The villagers mended the dyke.
And they gave caps. And Hans bought two cheese from the market.
He gave them to Biff and chip.

성남중원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독후영작문〉

박준녕

박준녕

Date: 2018/2/11/6/1

- Name of the book: Dutch Adventure
- Author: Roderick Hunt and Alex Brychta
- Characters: Biff, Chip, Trudy, Hans

Beginning

At home Biff and chip went to Biff's room. suddenly the key glowed. It took them to the Netherlands said chip "let's try to find a village!"

Middle

He shouted "And where's my cheese?" The man picked up the cheeses. At last he found it. "This one is mine," he said. Hans put the cheeses in some sacks. The sacks were heavy and it was hard work. "Pleu! This sack is heavy," said Biff. The girl was trying to stop it. "Help!" she shouted. The hole was getting bigger and bigger Biff had an idea "push the cheeses into the hole," he said.

End

"Hey us, please," yelled Hans. "The dyke is leaking!" "No, I'm in a hurry," said the man. Trudy and chip ran to a mill. they saw the man's bike. The man was inside. He had a knife. He was cutting up cheese in half. Inside the cheese were some diamonds. The villagers tied the man to the mill.

〈독후영작문〉

정성우재

정성우재

Date: 2018/27th / oct

● Name of the book: Dutch Adventure

● Author: Roderick Hunt

● Characters: Biff, Chip, Hans, Trudy

Beginning

Paul, Biff and Chip is went to the supermarket, and bought four cheeses and get two free baseball cap. At home magic key was glowed.

Middle

The magic took them Netherlands. They met Hans driving a cart. Biff, Chip and Hans went to the village.

On the way to the village, They went a man on a bicycle. At that moment a wheel came off the cart. They put the cheeses in some sack.

Suddenly they heard someone shouting. Water was spouting through the dyke. ^{The bird was trying to stop it.} They push the cheeses

in to the hole to stop it. But they need one more cheese. That moment, The man went past. Trudy and Chip was chase.

End

Finally, They notice the man is thief. So they call the villagers and they tied the thief to the wall. Villagers mended the dyke, and Biff and chip were home.

성남중앙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독후영작문〉

최주선정

Date: 2018/29th/Oct

- Name of the book: Dutch Adventure
- Author: Roderick Hunt, Alex Brychta
- Characters: Biff, Chip, Hans, Trudy

Beginning

Biff and chip and dad went to supermarket.
 dad bought four cheeses to get free baseball cap
 They arrived a home Suddenly the key glowed Adventure
 to started and

Middle

They arrived Netherland They meet Hans, Hans's
 cart on the many cheeses Suddenly a man past on a bicycle
 Suddenly Trudy held her hands over the leak but water was
 still pouring through push the cheeses into the hole Trudy and
 chip ran to a windmill and looked through the window
 Inside the man the cheese were come diamonds villagers
 helped dyke

End

Mayor's ~~wife~~ gave three cheeses for Trudy and Hans and
 their friends They gave Hans and Trudy their baseball
 caps The magic took Biff and Chip home

성남중앙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독후영작문〉

정성우재

2018년 10월 27일

Date: 2018/27th / oct

- Name of the book: Dutch Adventure
- Author: Roderick hunt
- Characters: Biff, chip, Hans, trudy

Beginning
 Dad, Biff and chip is went to the supermarket, and bought four cheeses and get two free baseball cap. At home magic key was glowed.

Middle
 The magic took them Netherlands. They met Hans driving a cart. Biff, Chip and Hans went to the village. On the way to the village, They went a man on a bicycle. At that moment a wheel come off the cart. They put the cheeses in some sacks. Suddenly they heard someone shouting. Water was spouting through the dyke. ^{The bird was trying to stop it.} They push the cheeses in to the hole to stop it. But they need one more cheese. ^{that moment,} The man went past. Trudy and chip was chase ^{End the story.} finally. They notice the man is thief. So they call the villagers and they find the thief together. All villagers mend the dyke and Biff and chip were home.

성남중앙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독후영작문〉

최주선정

Date: 2018/27th/Oct

- Name of the book: Dutch Adventure
- Author: Roderick Hunt, Alex Brychta
- Characters: Biff, Chip, Hans, Trudy

Beginning

Biff and chip and dad went to supermarket.
 dad bought four cheeses to get free baseball cap.
 They arrived home. Suddenly the key glowed ^{Adventure}
 and to started

Mid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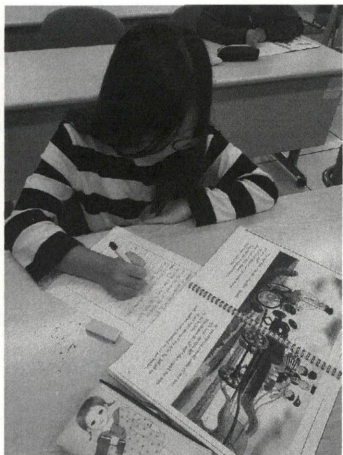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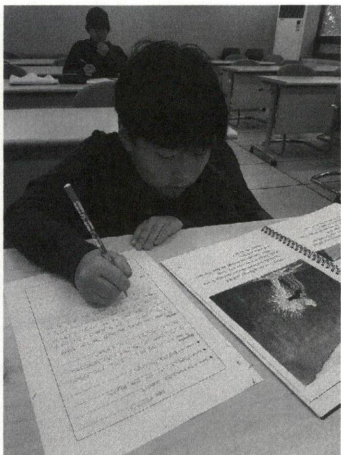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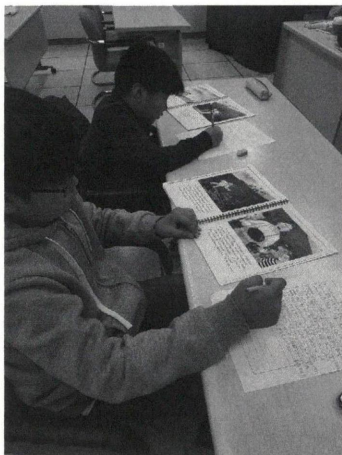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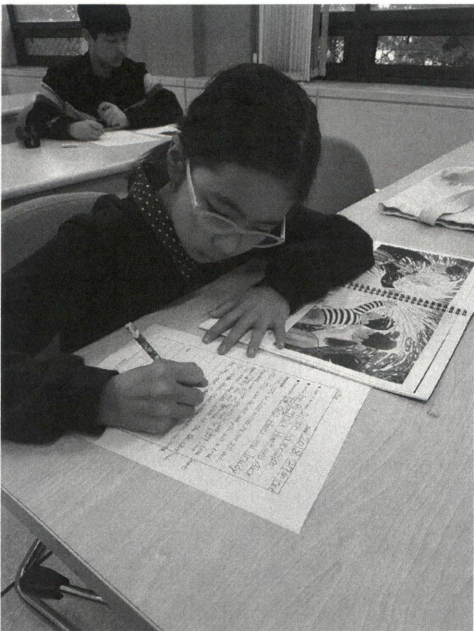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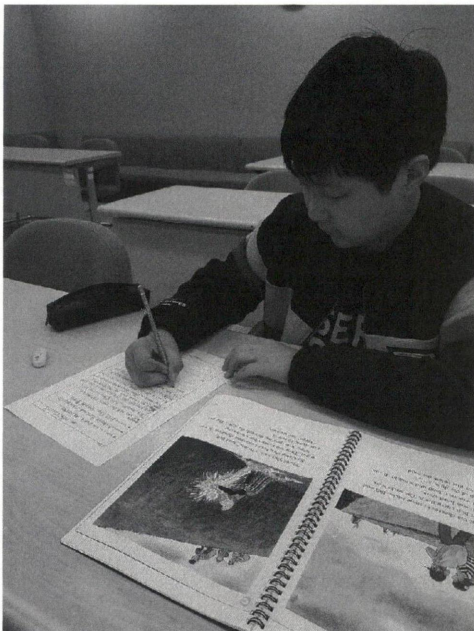
They arrived Netherland. They meet Hans. Hans's
 cart ^{is} on the many cheeses. Suddenly a man past on a bicycle.
 Suddenly Trudy held her hands over the leak but water was
 still pouring through. push the cheeses into the hole. Trudy and
 Chip ran to a windmill and looked through the window.
 Inside the man the cheese were some diamonds. villagers
 helped dyke.

End

Mayor's ~~with~~ gave three cheers for Trudy and Hans and
 their friends. They gave Hans and Trudy their baseball
 caps. The magic took Biff and Chip home.

성남중앙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활동사진〉



〈독후영단어〉 / xford Reading Tree: stage 9

Survival Adventure

이후



Let's answer the questions.



1. Why did Amy start to cry? (p.23)

She missed her parents

2. What were in a rucksack? (p.27)

There were torch, a ball of string, a plastic sheet, some chocolate and a first aid box

3. Why was Little Fox tired and fed up? (p.29)

He had been all day looking for honey

4. How was the wagon pulled out of the mud? (p.29)

Men at the Little Fox's father pulled

5. Why didn't Biff want to be on the wagon train? (p.30)

She thought it would be hard journey.

6. Why were the children on the bedroom floor? (p.4)

Because Mum said they could camp on

7. Why was there no honey? (p.11)

The bear in the woods had taken

8. Why was Amy tired and fed up? (p.5)

The wagons had been stuck for

9. Why was Amy in the wood? (p.5)

Amy had lost in the wood.

10. How did the children scare the bear? (p.18)

Biff open the umbrella and shot it. Then she opened it and shot it round, and round.



I'm learning the conjunctions.

★ Sentences ca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ogether.
Choose the wo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If

so

after

but

when

and

1. Little Fox tried to open the trap, but he wasn't strong enough.2. The bear was a long way away, but he heard Amy shouting too.3. It was a trap, and she couldn't get it off.4. Amy found lots of blueberries in the wood. So she didn't stay close to the wagon train. (then)5. After it stopped raining, the children went on.6. He laughed when they told him how the bear was afraid of Biff's umbrella.7. "It will be fun but we'll need a survival kit."8. " When we couldn't find you, we thought you had been killed by a bear."

Survival Adventure

김호태



Let's answer the questions.



1. Why did Amy start to cry? (p.23)

She missed her parents.

2. What were in a rucksack? (p.2)

There were food, a ball of string, a plastic sheet, some chocolate and a first aid box.

3. Why was Little Fox tired and fed up? (p.10)

He had been in the woods all day looking for honey.

4. How was the wagon pulled out of the mud? (p.24)

Ken and the Little Fox's father pulled the wagon out of the mud.

5. Why didn't Biff want to be on the wagon train? (p.30)

She thought would be a hard journey.

6. Why were the children on the bedroom floor? (p.4)

Mum said they could sleep on the floor for a while.

7. Why was there no honey? (p.11)

Bear in the woods had taken all the honey.

8. Why was Amy tired and fed up? (p.6)

The wagons had been stuck for two days.

9. Why was Amy in the wood? (p.8)

Amy had lost in the wood.



I'm learning the conjunctions.



★ Sentences ca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ogether.
Choose the wo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If

so

after

but

when

and

1. Little Fox tried to open the trap, but he wasn't strong enough.

2. The bear was a long way away, but he heard Amy shouting too.

3. It was a trap, and she couldn't get it off.

4. Amy found lots of blueberries in the wood, so she didn't stay close to the wagon train. (then)

5. After it stopped raining, the children went on.

6. He laughed when they told him how the bear was afraid of

〈독후영단어〉 / xford Reading Tree: stage 9

Survival Adventure

이호



Let's answer the questions.



1. Why did Amy start to cry? (p.21)

She missed her parents

2. What were in a rucksack? (p.21)

There were torch, a ball of string, a plastic sheet, some chocolate and a first aid box

3. Why was Little Fox tired and fed up? (p.19)

He had been all day looking for honey

4. How was the wagon pulled out of the mud? (p.29)

Men at the Little Fox's father pulled

5. Why didn't Biff want to be on the wagon train? (p.30)

She thought it would be hard journey.

6. Why were the children on the bedroom floor? (p.4)

Because Mum said they could camp on

7. Why was there no honey? (p.11)

The bear in the woods had taken all the honey.

8. Why was Amy tired and fed up? (p.4)

The wagons had been stuck for two days

9. Why was Amy in the wood? (p.8)

Amy had lost in the wood.

10. How did the children scare the bear? (p.18)

Biff open the umbrella and shot it. Then she opened it and shot it round, and round.



I'm learning the conjunctions.

★ Sentences ca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ogether.
Choose the wo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If

so

after

but

when

and

1. Little Fox tried to open the trap, but he wasn't strong enough.2. The bear was a long way away, but he heard Amy shouting too.3. It was a trap, and she couldn't get it off.4. Amy found lots of blueberries in the wood. So she didn't stay close to the wagon train. (then)5. After it stopped raining, the children went on.6. He laughed when they told him how the bear was afraid of Biff's umbrella.7. "It will be fun but we'll need a survival kit."8. "When we couldn't find you, we thought you had been killed by a bear."

Survival Adventure

박준녕



Let's answer the questions.



- 1. Why did Amy start to cry? (p.23)
She missed her parents.
- 2. What were in a rucksack? (p.2)
There were a torch, a ball of string, a plastic sheet, some chocolate and a first aid kit.
- 3. Why was Little Fox tired and fed up? (p.10)
He had been in the woods all day looking for honey.
- 4. How was the wagon pulled out of the mud? (p.29)
One of the little fox's father pulled the wagon out of the mud.
- 5. Why didn't Biff want to be on the wagon train? (p.30)
She thought it would be a hard journey.
- 6. Why were the children on the bedroom floor? (p.4)
Mum said they could sleep on Chip's bedroom floor.
- 7. Why was there no honey? (p.11)
The bear in the woods had taken all the honey.
- 8. Why was Amy tired and fed up? (p.6)
Because the wagon had been stuck for two days.
- 9. Why was Amy in the wood? (p.8)
Amy had lost in the wood.
- 10. How did the children scare the bear? (p.18)
Biff opened the umbrella and stuck it.



I'm learning the conjunctions.



- ★ Sentences ca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ogether.
Choose the wo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 then

If

so

after

but

when

and
- 1. Little Fox tried to open the trap, but he wasn't strong enough.
 - 2. The bear was a long way away, but he heard Amy shouting too.
 - 3. It was a trap, and she couldn't get it off.
 - 4. Amy found lots of blueberries in the wood, then she didn't stay close to the wagon train.
 - 5. After it stopped raining, the children went on.
 - 6. He laughed when they told him how the bear was afraid of Biff's umbrella.
 - 7. "It will be fun but we'll need a survival kit."
 - 8. "When we couldn't find you, we thought you had been killed by a bear."

〈독후영단어〉 / xford Reading Tree: stage 9

Survival Adventure

예진

Let's answer the questions.

1. Why did Amy start to cry? (p.23)
She missed her parents
2. What were in a rucksack? (p.2)
fish, ball of string, a plastic sheet, some chocolate
3. Why was Little Fox tired and fed up? (p.10)
He had been in the woods all day looking for honey
4. How was the wagon pulled out of the mud? (p.29)
Men of the little fox's father pulled it
5. Why didn't Biff want to be on the wagon train? (p.30)
she thought it would be a hard journey
6. Why were the children on the bedroom floor? (p.4)
Mum said they could camp on Chip's bed
7. Why was there no honey? (p.11)
The bear in the woods had taken all the honey
8. Why was Amy tired and fed up? (p.6)
The wagons had been stuck for two days
9. Why was Amy in the wood? (p.8)
Amy had lost in the wood
10. How did the children scare the bear? (p.18)
Biff opened the umbrella and shut it. Then she opened it and spun it round and

I'm learning the conjunctions.

★ Sentences ca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ogether.
Choose the wo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If

so

after

but

when

and

1. Little Fox tried to open the trap, but he wasn't strong enough.
2. The bear was a long way away, but he heard Amy shouting too.
3. It was a trap, and she couldn't get it off.
4. Amy found lots of blubberies in the wood, so she didn't stay close to the wagon train. (then)
5. after it stopped raining, the children went on.
6. He laughed when they told him how the bear was afraid of Biff's umbrella.
7. "It will be fun but we'll need a survival kit."
8. "when we couldn't find you, we thought you had been killed by a bear."

Survival Adventure

윤성원



Let's answer the questions.



1. Why did Amy start to cry? (p.23)
She missed her parents.
2. What were in a rucksack? (p.2)
There were plastic sheet, torch, a ball of string.
3. Why was Little Fox tired and fed up? (p.10)
He had been in the woods all day looking for honey.
4. How was the wagon pulled out of the mud? (p.29)
Mum of the Little Fox's father pulled the wagon out of the mud.
5. Why didn't Biff want to be on the wagon train? (p.30)
She thought it would be a hard journey.
6. Why were the children on the bedroom floor? (p.4)
Mum said they could compare Chip's bed room to her.
7. Why was there no honey? (p.10)
Bear in the wood had taken all the honey.
8. Why was Amy tired and fed up? (p.6)
The wagons had been stuck for two days.
9. Why was Amy in the wood? (p.8)
Amy had lost
10. How did the children scare the bear? (p.18)
Biff opened the umbrella and shut it over round and round

7



I'm learning the conjunctions.



- ★ Sentences ca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ogether.
Choose the wo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If	so	after
but	when	and

1. Little Fox tried to open the trap, but he wasn't strong enough.
2. The bear was a long way away, but he heard Amy shouting too.
3. It was a trap, and she couldn't get it off.
4. Amy found lots of blueberries in the wood, then she didn't stay close to the wagon train.
5. After it stopped raining, the children went on.
6. He laughed when they told him how the bear was afraid of Biff's umbrella.
7. "It will be fun but we'll need a survival kit."
8. When we couldn't find you, we thought you had been killed by a bear."

6

〈독후영단어〉 / xford Reading Tree: stage 9

Survival Adventure

정성우재



Let's answer the questions.



1. Why did Amy start to cry? (p.23)

Because she missed her parents.

2. What were in a rucksack? (p.2)

There were ten, a ball of string, a plastic lid, some chocolate and a first aid kit.

3. Why was Little Fox tired and fed up? (p.10)

He had been in the wood all day looking for honey.

4. How was the wagon pulled out of the mud? (p.24)

Men of the little fox's father pulled the wagon out of the mud.

5. Why didn't Biff want to be on the wagon train? (p.30)

She thought it would be a hard journey.

6. Why were the children on the bedroom floor? (p.4)

Because mum said could compare with his grandmother.

7. Why was there no honey? (p.11)

The bear in the wood had taken all the honey.

8. Why was Amy tired and fed up? (p.6)

Because the way was had been stuck for twenty.

9. Why was Amy in the wood? (p.8)

Because she had lost in the wood.

10. How did the children scare the bear? (p.18)

Biff opened the umbrella and shut it. Then she opened it and spun it round and round.

I'm learning the conjunctions.

★ Sentences ca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ogether.
Choose the wo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If

so

after

but

w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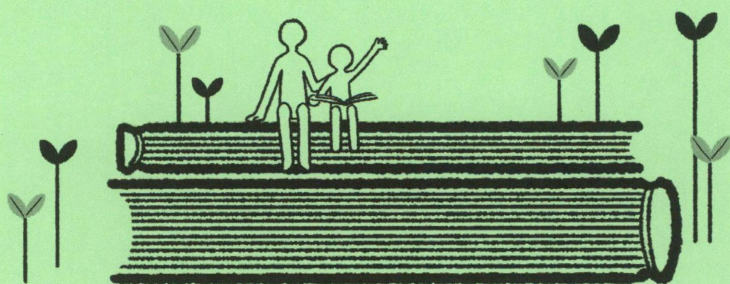
and

1. Little Fox tried to open the trap, but he wasn't strong enough.2. The bear was a long way away, but he heard Amy shouting too.3. It was a trap, and she couldn't get it off.4. Amy found lots of bluberries in the wood, then she didn't stay close to the wagon train.5. After it stopped raining, the children went on.6. He laughed when they told him how the bear was afraid of Biff's umbrella.7. "It will be fun but we'll need a survival kit."8. "When we couldn't find you, we thought you had been killed by a bear."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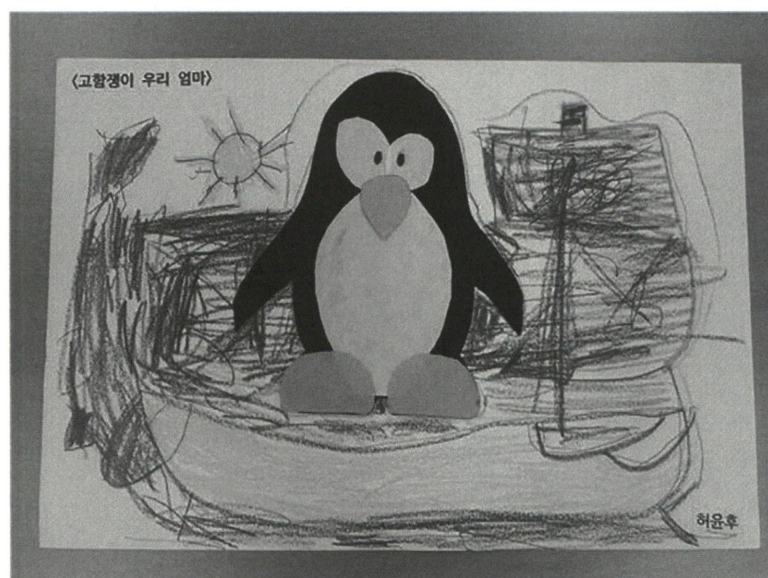
유치부 어린이독서회

등장인물 표현, 독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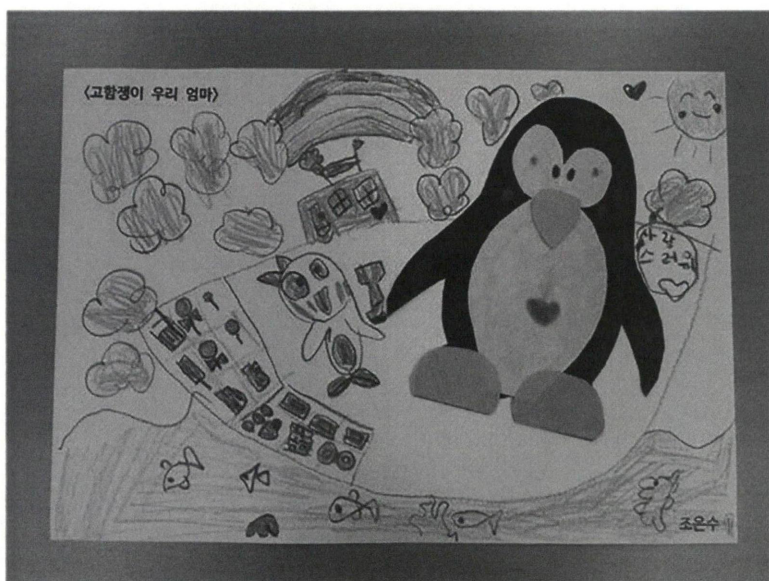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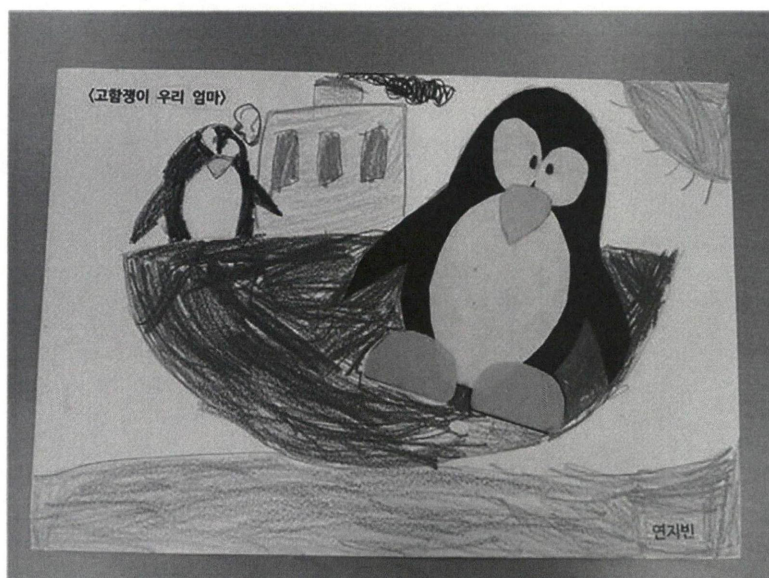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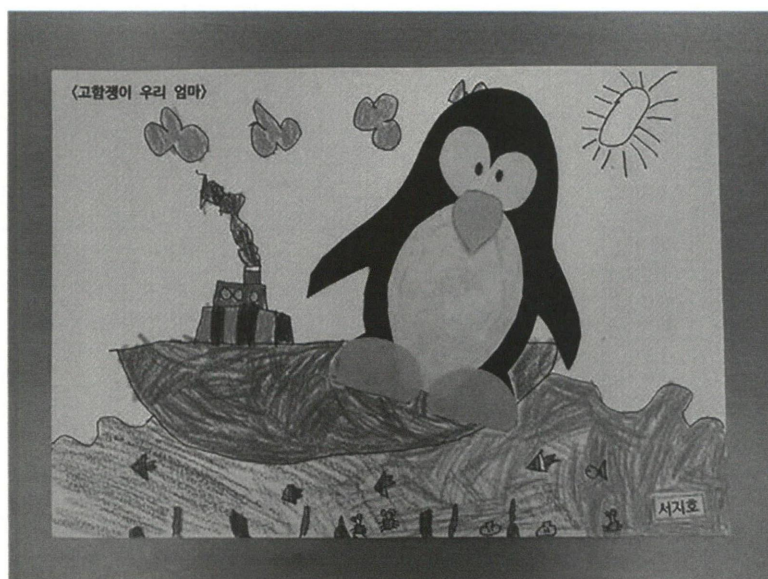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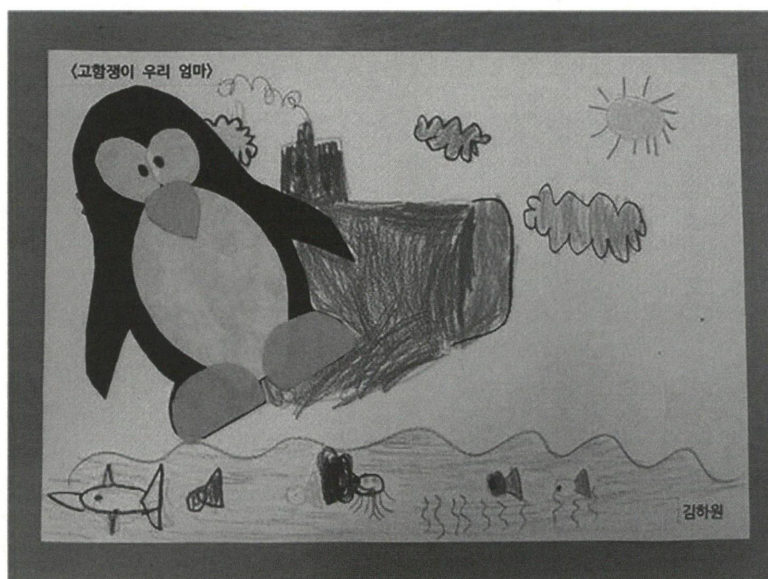
〈작품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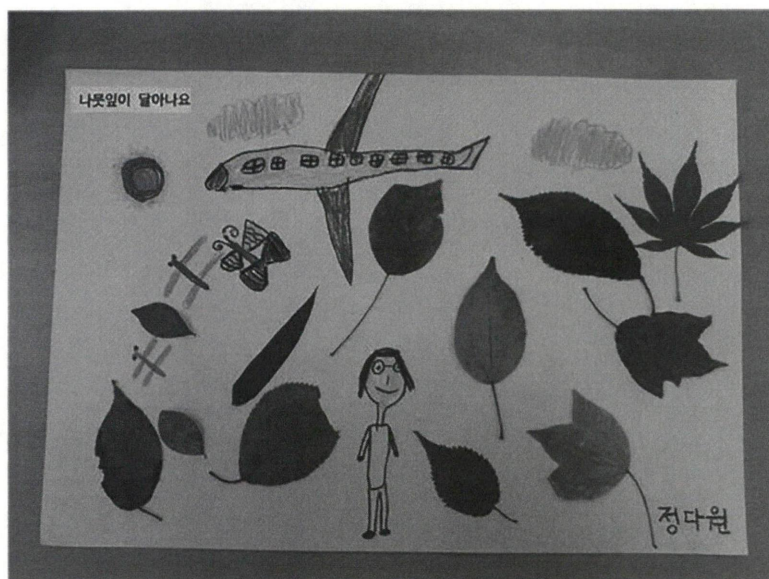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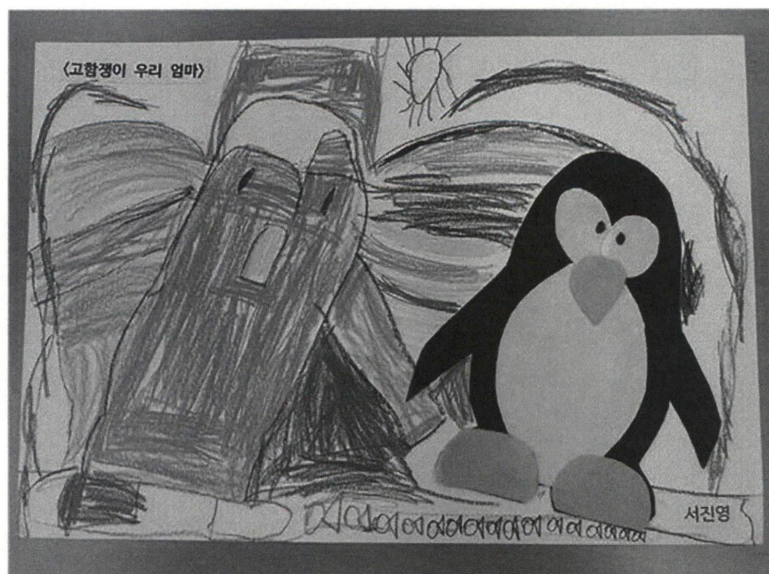
〈작품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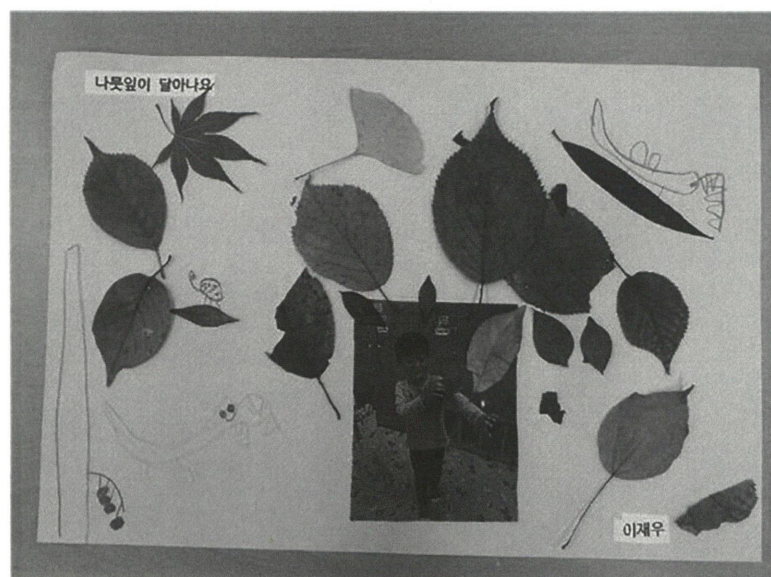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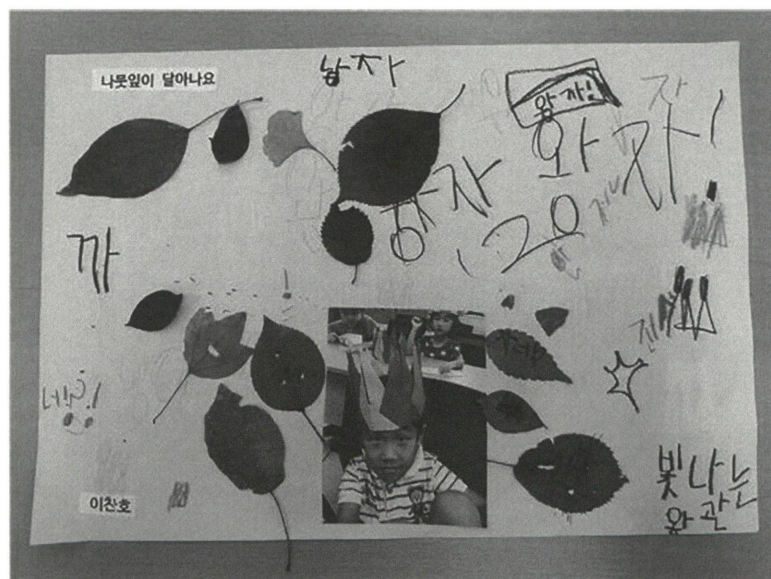
〈작품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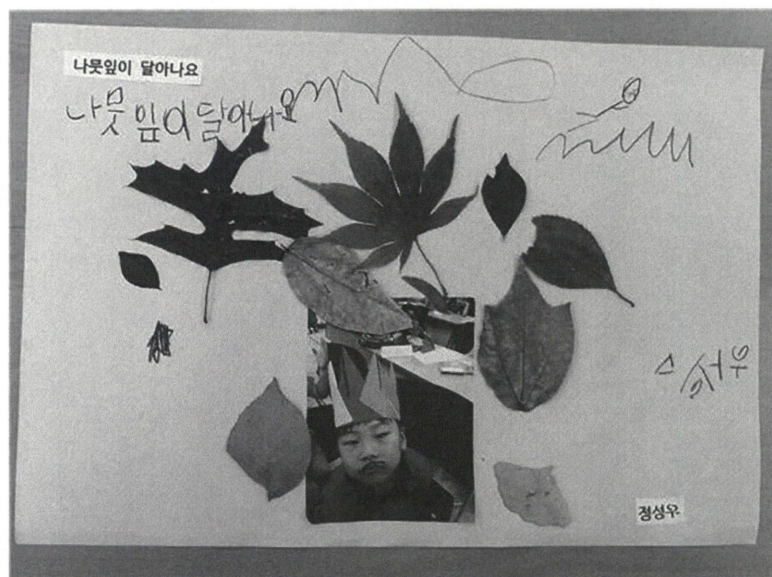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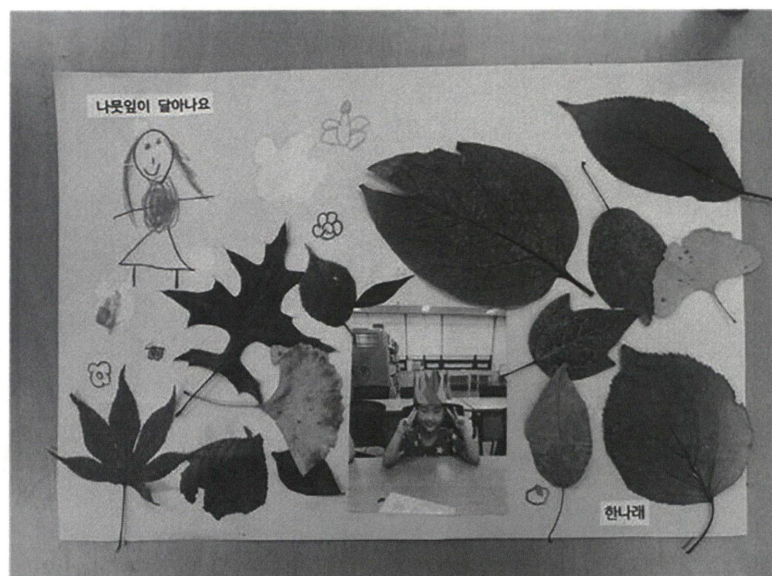
〈작품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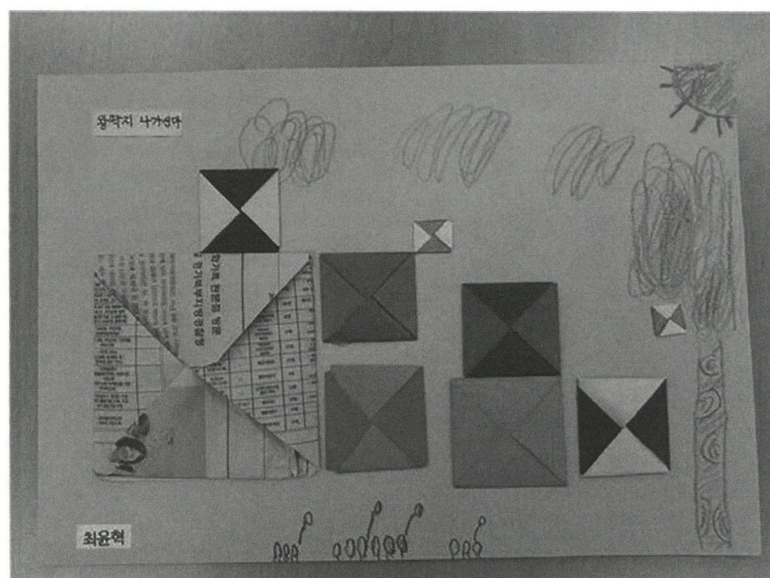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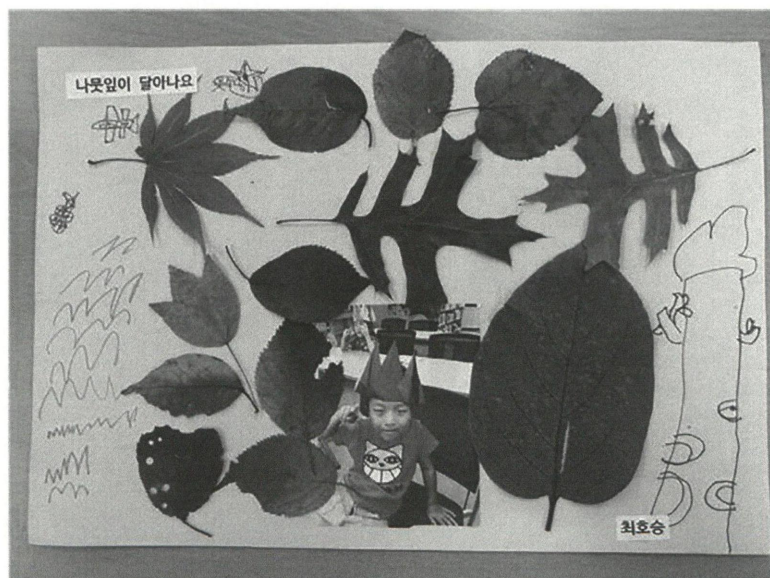
<작품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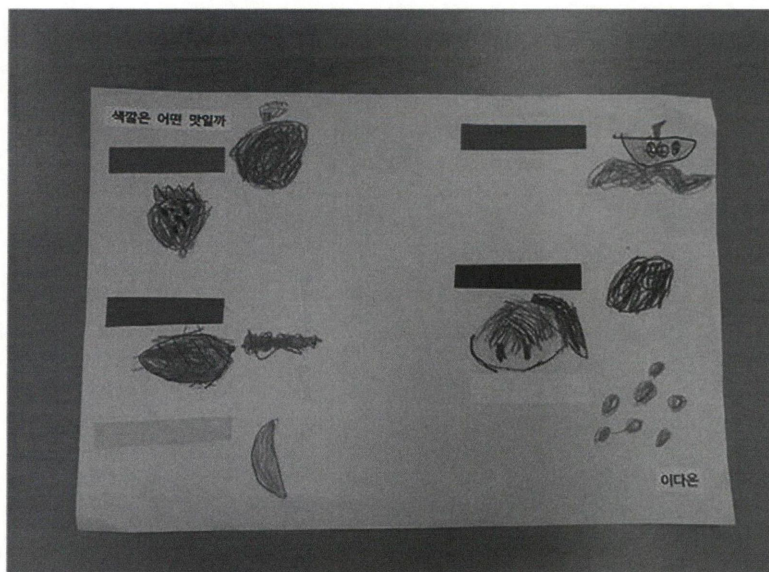
〈작품활동자료〉



〈작품활동자료〉



〈작품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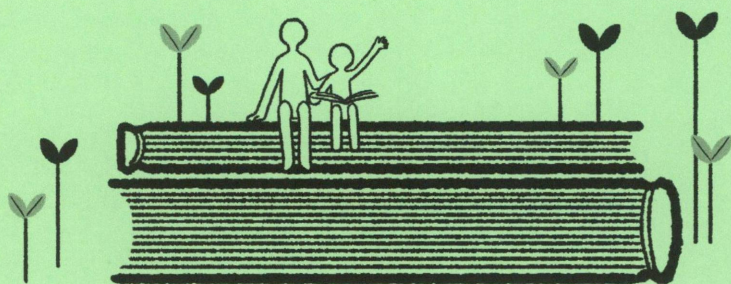
〈작품활동자료〉



여 백

저학년 어린이독서회

독후동시



여 백

〈독후 동시〉

500권 책을 쓴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김민결

정약용은 거중기도 만들고

배다리도 만들고

만든 성은 수원화성이고

시대는 조선이고

별명은 삼미자이고

시집 이름은 삼미집이고

도움되는 학문은 실학이고

정약용 선생님은

책을 500권 만들었네!

대단하고 대단하네!



〈독후 동시〉

가슴이 콩닥콩닥 -거짓말을 읽고-

김희찬

거짓말은 오늘도 했고,

거짓말은 어제도 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또 아프다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떨떨하지 못하다.

거짓말은 가시이고

거짓말은 도깨비방망이다.

용기를 내어 습관을 고치자.

무슨 습관을 고칠까?

정직한 습관을 고치면

기분이 좋아진다.

〈알리는 글〉

〈독후 동시〉

훌륭한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수진초 1학년 이가인

정약용 선생님은 어느 시대서 살았을까요?

바로 조선과 정조 임금 때.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거중기를 만들고

임금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배다리를 만들고,

어린 시절 별명은 삼미자이었네.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지었네.

고을 사또가 되어

마을 사람을 도와주었네.

멋진 학자 정약용 선생님.



〈독후 동시〉

구렁이 각시 -‘구렁덩덩 신선비’를 읽고-

대하초 1학년 이찬민

신선비를 찾아 만났지요?

구렁덩덩 신선비는 왜 각시에게

허물을 맡겼을까요?

찾아가는데 정말 힘들었죠?

까치, 뱀돼지, 농부, 아이를 찾아갔어요.

기와집 마루 밑에서 신선비를 만났어요.

저도 그런 도전을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각시 언니들은

왜 허물을 활활활 태워버렸을까요?

정말 슬퍼요.

〈독후 동시〉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든 사람,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성수초 1학년 정진혁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인물이고요

정조 임금님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의 능을

수원 화성으로 옮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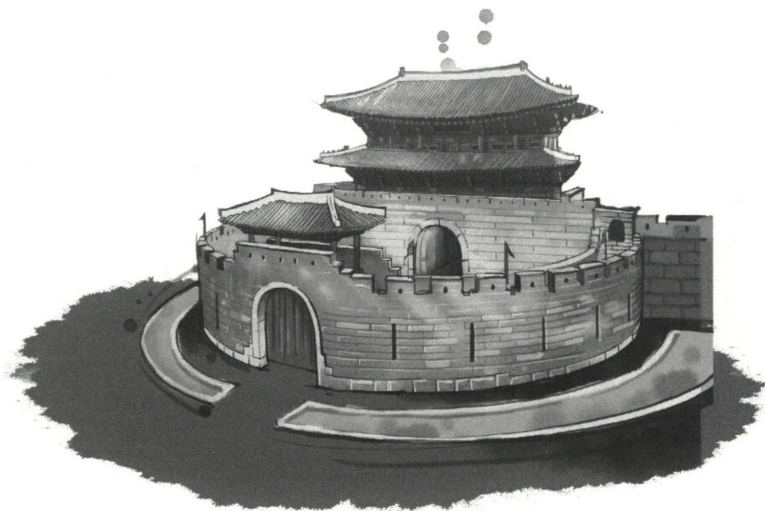
그 부근에 ‘수원 화성’을 짓고

화성을 지을 때 편리하게 만든 기구가

바로 ‘거중기’ 예요.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



〈독후 동시〉

정약용 선생님은 대단해!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성수초 2학년 조은교

수원화성.

거중기.

배다리.

다들 정약용 선생님을

존경하면 좋겠다.

삼미자라는 별명과

심미집이라는 시집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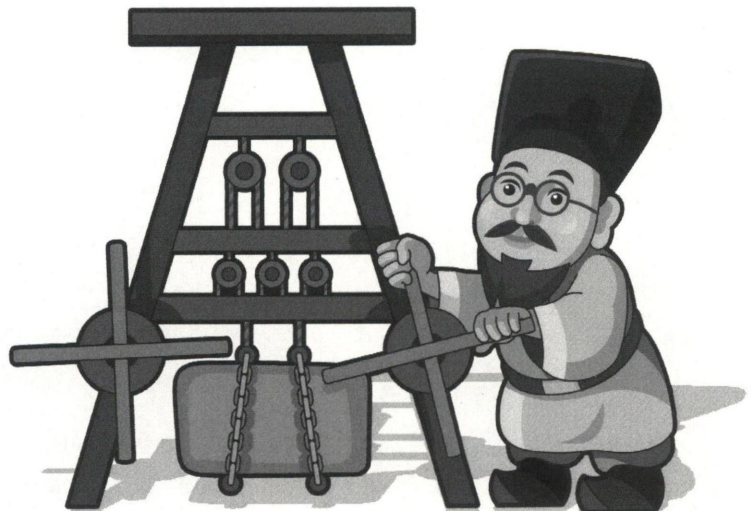
가족과 떨어져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500권도 넘는

시집을 만들었다.

정약용 선생님은 대단해!



〈독후 동시〉

책을 많이 쓴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도춘초 1학년 좌시연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시대 살았네.

정조 임금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를 위해

수원 화성을 지었네.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거중기를 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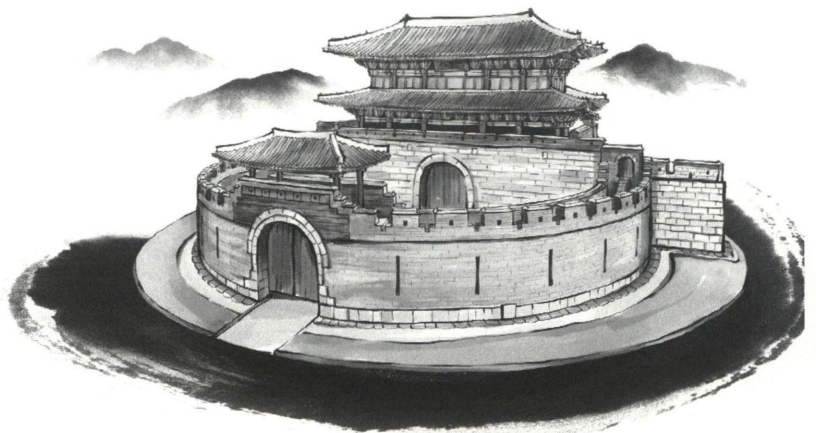
임금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배다리를 만들었네

어릴 때 써서 모아둔 시집,

삼미집이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서 착하네.



〈독후 동시〉

구령이 각시에게 ‘구령덩덩 신선비’를 읽고-

성남제일초 2학년 최이수

신선비를 찾아나선 각시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까마귀는 구더기를 씻어주고,

멧돼지에게는 칫뿌리를 캐주고, 농부에게는 밭을 갈아주고,

아이에게는 은가락지를 주고

기와집으로 갔어요.

허물을 벗은 신선비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생해서 신선비를 만났으니 다행이에요.

나도 원하는 일이 있으면

노력해서 얻어야겠어요.



〈독후 동시〉

모두 함께 지켜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읽고-

대하초 1학년 김하란

엘리베이터 버튼 오래 누르기

과속 운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줘.

버튼을 오래 누르지 말고

정해진 속도로 다니자.

잔디밭에서 음식물 먹지 말자.

그리고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행복한 우리 가족



〈독후 동시〉

행복한 가족 -‘행복한 우리 가족’을 읽고-

검단초 1학년 하윤서

소연이네 가족은 미술관에 갔네.
엄마가 먹을 것을 잔뜩 싸왔네.
왜냐하면 밖에서 파는 음식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려던 엄마는
핸드폰 두고 온게 생각 났네.

마트에 간 엄마는 물을 샀네.
소연이는 미술관에서 소공녀라는 연극이
있어서 들떠 있었네.

미술관에서 친구 연회를 만났네.
연극을 보러가서 기념품으로 배지를 받았네.

집에 돌아갈 때는 갈비찜을 먹었네
식당에서는 옆자리 꼬마가 시끄럽고
제멋대로여서 짜증이 났네.
집에 와서는 컴퓨터로 일기를 썼네.
행복한 우리 가족.



〈독후 동시〉

재판관에게 주는 상장
-‘샌지와 빵집 주인’을 읽고-

대하초 1학년 문찬

표 창 장

받는 사람: 재판관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일을 했기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첫째, 지혜롭게 해결해주었다.

둘째, 샌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셋째, 똑같이 갚아주었다.

(대하)초등학교 (1)학년 (4)반 이름(문찬)

〈독후 동시〉

신선비를 찾아나선 각시 ‘구렁덩덩 신선비’를 읽고-

대하초 1학년 문채연

각시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찾아나섰어요.
까마귀에게 칠파리를 캐주고,
또 농부에게 밭을 갈아주고
아이에게 은가락지를 주었어요.
기와집에서 신선비를 만났는데,
또 새각시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선비는 각시와 새각시에게 내기를 했어요.
호랑이 눈썹 세 개를 뽑아오면 결혼해준다고 했어요.
각시가 이겼어요.
각시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독후 동시〉

냄새 값 -‘샌지와 빵집주인’을 읽고-

성남중앙초 2학년 박용빈

- 제목 : 재판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판결 내용을 알리는 글
- 사건 : 샌지가 빵 냄새를 맡자, 빵집 주인이 빵 냄새 값을 내라며 샌지를 고소함

동네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샌지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금 억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빵집주인 아저씨랑 샌지는 재판관을 찾아가자. 재판관은 샌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재판장에 오거라. 그리고 샌지 넌 다섯 냇을 가져오거라.”

다음날 빵집주인 아저씨랑 샌지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이 철통 그릇에 동전을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짤랑, 두 번째 소리는 딸랑, 세 번째는 딸그락, 네 번째는 땡그랑, 다섯 번 째는 딸그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빵집 주인에게

“은넝 소리를 들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소리로 돈을 갚았다고 재판관님이 말했습니다.

이 소리가 빵냄새 값을 갚은 것이라 했습니다. 샌지는 조금 억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재판관이 샌지를 인정해줬습니다.

〈독후 동시〉

궁궐 어처구니 -‘어처구니 이야기’를 읽고-

성남중앙초 2학년 이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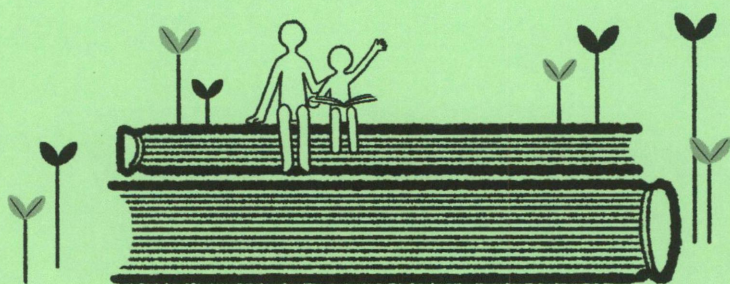
어처구니 이야기’ 책을 소개할게.

옛날 어느 하늘나라 임금님 말씀쟁이 5명 어처구니들한테 벌을 내리는데 며칠 후 신하가 손이라는 귀신이 사람들을 해친다고 했어. 임금님 하루종일 궁리하다가 어처구니들한테 열흘 동안 손이라는 귀신을 잡아와라 잡아오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임금님 말했어. 하지만 어처구니들은 혼쭐만 났지 뭐야. 그때 대당사부가 하늘도서관에 가서 책을 사흘 동안 읽고 모두에게 임무를 주었어. 조금 있다가 손이 당을 내려왔어. 그때 이구룡이 이렇게 바위 뒤에서 말했어. 청동그릇에 손보다 무서운 귀신이 있대. 그때 손은 그 말에 넘어가고 저팔계가 나랑 싸우자 했어. 근데 저팔계가 지고 말았지. 그래서 저팔계가 말했어. 청동그릇에 무서운 귀신이 있다는데 그건 못이길 걸.

곧 벌러덩 나가떨어졌지. 그제야 손은 청동그릇 안에 있는 귀신이 궁금했어. 청동그릇을 내다봤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 안에 있는 줄에 감겼는데 얼마되지 않아 줄이 끊어져버려 손은 멀리 도망갔다. 그 틈에 손은 멀리멀리 달아나 버렸어. 어처구니들은 하늘나라 임금님이 모두 잡아다가 벌을 주었어. 궁궐 추녀마루 끝에 올라가서 손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게 했단다.

중학년 어린이독서회

독후동시, 활동사진



여 백

〈독후 동시〉

불안에 대하여

검단초 4학년 최주아영

시험볼 때

거짓말을 할 때

할 일을 못했을 때

나는 불안하다

불안은 나를 어떻게 만들까?

초조하게 아니면 스트레스를 쌓이게

우리는 세상을 있는대로 볼까? 아니!

우리는 불안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개성, 변화, 행복, 자유, 불안을

모두 갖고 있다.

나는 불안을 이기고

나의 할 일을 할 것이다.



〈독후 동시〉

자유에 대하여

대하초 4학년 김시연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나는 자유로울까?

우리는 항상 자유롭지는 않다.

자유는 왜 생기는 걸까?

나만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유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걸까?

그 것이 주어지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완벽하게 그런 자유가 찾아오는 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자유를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독후 동시〉

행복에 대하여

수진초 3학년 양서현

행복의 종류는 '기쁨, 웃음, 가족'

행복을 잴 수 없는 것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고

소원을 다 이루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노력, 배려, 용서, 용기, 인내심'

'행복'이란 말은 소중하다.

우리를 웃게 해준다.



〈독후 동시〉

행복에 대하여

제일초 4학년 최이우

행복은 무엇일까?
가족과 친구가 있어 기쁜 것이 행복일까?

행복은 여러 종류일까?
가족이 항상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의 종류라고 할 수 있지

만약 나의 행복을 1m라고 잴 수 있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소원을 다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 배려, 용서, 용기, 사랑, 인내심이겠지.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없는 부분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꼭 행복해질 수 있을거야.



〈독후 동시〉

자유에 대하여

성남중앙초 4학년 임사론

자유롭다는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무엇을 할지,

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할 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아야 아는 것

자유는 책임이 있어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자유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있지만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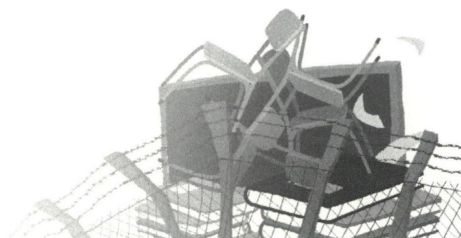
자유롭다는 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신의 자유를 책임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나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



〈독후 동시〉

엄마의 미소 -‘오늘은 특별한 날’을 읽고-

수진초 3학년 양서현

내 눈에 예뻐 보이는게 많아

예술적인 개미떼

향기로운 찔레꽃

새콤달콤한 산딸기

하늘을 마주보고 있는 쥐똥나무

모두가 예뻐!

하지만 난 모두가 예쁘지만

개미떼, 찔레꽃, 산딸기, 쥐똥나무

보다 엄마의 미소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독후 동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오늘은 특별한 날’을 읽고-

대하초 4학년 김시연

두두의 안경은 모든 걸 비추어 보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았지.

개미똥, 짙레꽃, 산딸기, 쥐똥나무

두두는 그것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지.

“두두야!”

엄마의 손에는 구슬이 들려 있고,

손은 흙투성이었지.

그제야 깨달았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독후 동시〉

엄마의 미소 -‘오늘은 특별한 날을 읽고-

검단초 4학년 최주아영

구슬을 잃어버렸다가

안경을 주웠어요.

눈앞에 예쁜 풍경이 펼쳐져요.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떼

향기나는 짙레꽃

달콤한 산딸기

나뭇잎이 멋진 쥐똥나무

하지만 구슬을 찾지 못했어요.

“두두야”

구슬을 들고 나타난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독후 동시〉

엄마의 아름다움 -‘오늘은 특별한 날을 읽고’-

성남제일초 4학년 최이우

안경을 껴보니

온 세상이 다 보인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떼

고운 찔레꽃

새빨간 산딸기

저 멀리 뻗은 쥐똥나무

처음 본 두두는

이 광경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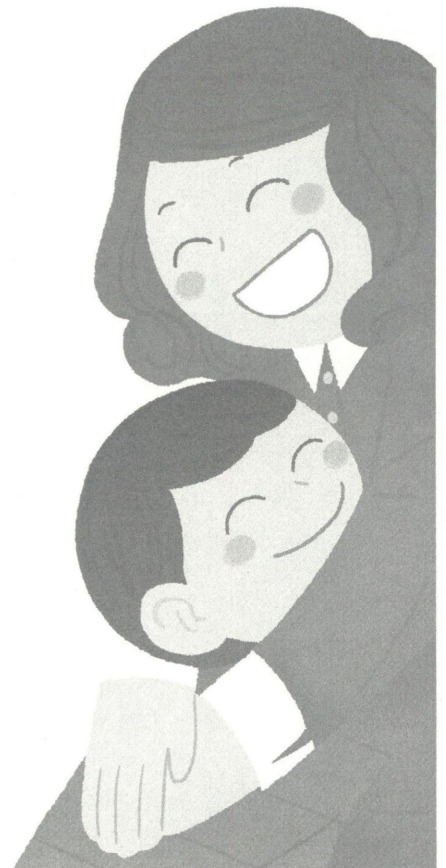
구슬을 들고 있으며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두두는 이 광경이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Beautiful



〈독후 동시〉

답답한 마음 해결 방법 -‘도와줘요, 닥터 꿈치’를 읽고-

성남중앙초 4학년 임사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날리면

헬륨 풍선 안에

편지를 묶고 날려요.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요

종이를 찢어요.

하루 종일 뛰어놀아요.

친구에게 시원하게 말해요.

글을 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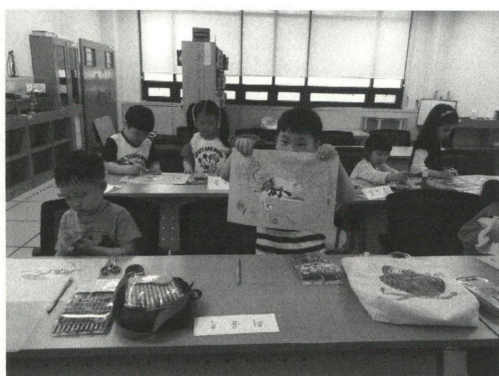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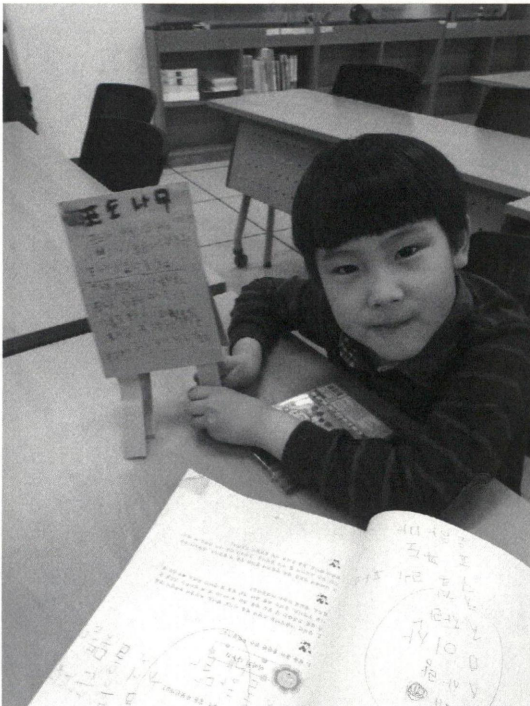
넓은 자연을 봐요.

바다, 산, 물을요.



〈어린이독서회 활동사진〉





2018년 중원독서회 문집 (제12호)

【책과 만나는 작은 이야기】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처 성남도시개발공사

편 집 성남시중원도서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17번길 46

연 락 처 TEL. 031)752-3913~7 / FAX. 031)752-5597

홈페이지 <http://snlib.go.kr/jw>

ISSN | 1976-5843 (비매품)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성남시중원도서관에 있습니다.



SDC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중원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17번길 46(구.성남동 3116-1)

Tel 031)752-3913~7 Fax 031)752-1616

홈페이지 <http://snlib.go.kr/jw> 트위터 @jwsnlib